

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선도 추진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4만6365톤CO2eq 감축 정부 감축목표보다 3.0%p ↑, 13년 연속 목표 달성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선두주자로 나섰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4만6,365톤CO2eq를 감축하며 정부 감축목표인 36%보다 3.0%p 높은 39.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한 2011년 이후 2023년까지 13년 연속 목표 달성한 기관이 됐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

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2011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789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기준배출량의 50%를 감축하며 이행·평가·관리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011년 감축목표 4%를 시작으로 매년 기준배출량의 2%씩을 상향 감축하고 있으며, 2023년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의 36%인 4만 2,947톤CO2eq다.

도와 시군, 15개 기관 중 감제시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목표를 달성했으며, 평균 감축율은 39.0%, 감축량은 4만6,365톤CO2eq로 이는 소나무 약 33만 여그루를 식재한 효과다.

또한, 청사 내 LED조명 등 고효율 기기 교체, 유류부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친환경 차량 확대, 업무시간 외 조명 소등 및 실내 적정온도 유지, 구내식당 채식의 날 운영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생활속 실천운동을 꾸준히 추진해 도는 13년 연속 정부의 목표관리제를 달성했다.

나아가 2024년부터는 기후위기 시대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비의무 대상인 전북자치도 출

자·출연기관 16개소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시범추진한다.

아울러 탄소포인트제 확대,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전개, 채식의 날 시군 확대 등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온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부문 실천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여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교 신오쿠보 지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도교 신오쿠보 한인타운에서 전북자치도 관광 매력 알린다

전광판에 관광 영상 송출 및 현지 설명회 등 유치 총력

전북특별자치도는 일본 최대 한인타운이자 한류의 성지인 도교 신오쿠보 지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홍보 영상을 상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신오쿠보 대형 전광판에 전북특별자치도 비전과 가치를 알리는 종합 홍보영상과 14개 시군의 매력을 담은 '전북 특별한 관광지' 영상 2편을 송출한다.

영상은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도교의 대표적인 변화기인 신주쿠와 신오쿠보 사이의 '오쿠보도오리'와 '쇼쿠안도오리' 한류 중심지 대형 전광판 2개소에서 시간당 2회, 1일 총 48회에 걸쳐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송출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12월 14일, 도가 도교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와 현지 관광업계, 미디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개최한 '전북 국제관광페스타'의 후속 성과로서 동경사무소,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간 협력의 결과이다.

전광판 홍보장소를 제공한 신주

쿠상인연합회 정재욱 회장은 "전북과는 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를 위해 전북동경사무소 김희갑 소장과 자주 연락하며 인연을 맺어 시작했고, 작년 12월 도교에서 열린 전북국제관광페스타 참석을 계기로 전광판 홍보를 제안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북 관광홍보 뿐만 아니라 10월 전북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홍보를 위해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전광판 홍보를 통해 최근 일본 내 한국의 콘텐츠·패션·음식 등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비하는 4차 한류 영향으로 코리안투어를 찾는 일본의 잠재적 여행객에게 전북 인지도 제고 및 관광 홍보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3월 말, 일본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도교에서 열리는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관광세미나 및 상담회, 소비자 행사를 참가해 전북 관광 알리기에 적극 나선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여성 폭력 근절' 앞장

시·군, 경찰청, 여성폭력업무 관련기관 등 연합 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는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및 스토킹 등 신종범죄 예방을 위해 시군 및 경찰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 함께 여성폭력 근절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여성폭력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알리고, 폭력 피해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는 홍보물 등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시군별로 상반기 중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터미널과 시장 등에서 여성폭력 인식개선 기본캠페인과 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며, 특히 시군축제 기간에 방문객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20일, 전북경찰청, 여성폭력상담소 관계자 등과 함께 전주 중앙

시장 인근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관련 계시물 전시, 전단지 및 홍보물 등을 배포하며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민간 협력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폭력예방 캠페인, 피해자 위기지원 공동 대응 등을 위해 여성안전지역연대를 운영하고 있다.

도 및 시군 각 연대는 도민 의식개선 및 관심 유도를 위해 가정의 달, 하계휴가철 등에 시군 합동으로 연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학교 주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검토도 병행해 추진한다.

도민에게 폭력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도 추진한다.

교육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가 도

지정기관인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 신청하면 전문강사가 교육 현장에 직접 찾아가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시(전주, 군산, 익산, 정읍)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센터를 통해 5만4,000여명이 체험관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문화활동 및 성교육 상담 등에 1만7,000여명이 참여했다.

김경도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은 한 개인뿐 아니라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이웃을 둘러보고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025년 임산물 유통 가공분야 공모 신청

전북특별자치도는 임산물의 2차 가공 및 제품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산림청 '2025년 산림소득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을 5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4개소(40억원),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1개소(20억원) 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약 60억원 규모다.

사업대상자가 소재한 시·군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 등 공모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된 신청서는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7월 중순 공모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공모 지원대상자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79개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이며, 최종 선정된 생산자단체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통·가공 기반 시설을 갖춘 수 있다. 도에서는 2025년 임산물 유통·가공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4개 시·군과 함께 도내 임산물 생산자단체인 영농조합, 농협회사, 산림조합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상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는 동일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단체와 일대일로 연결해 사업준비 단계부터 내실있게 대응할 계획이다.

황상국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장은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에게 사업 신청부터 선정 시까지 전 과정을 공유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대상 실내 환경 진단·개선 추진

50개 가구 선정해 공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성질환의 적절한 예방관리를 위해 환경성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 진단·컨설팅,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성질환이란 생활환경 속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사람의 체내에 흡수,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이 있다. 특히 산업화, 주거 형태 및 생활습관의 변화, 화학물질 사용 증가 등

면역체계 약화로 환경성 질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이에 도내 173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 진단·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가가 가구를 방문해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등 7개 환경오염물질을 측정·진단하고 오염도를 줄이는 방법 등 컨설팅을 제공하며, 대상 가구 중 실내 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 50개를 선정해 곰팡이 제거, 친환경 벽지·장판 시공 등 개선 공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3월 20일까지 실내 환경 진단·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환경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환경성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가구이다.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 정책 추진으로 민생으로 한걸음, 행복으로 만걸음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오경재, 이하 지원단)'과 함께 7일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및 관련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강화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됐다.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강화로 필수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참여자 토론을 실시했다.

이정우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워크숍이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돌아보고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